

# 白 to the future...첨단·자연 아우르는 미래도시에 안착

<백남준>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 9주기를 맞아 추모전 'TV는 TV다'와 '2015 랜덤 액세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센터 내 라이브러리. /최현배 기자 skypark@kwangju.co.kr



'슈베르트'



'찰리 채플린'

##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4>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과 용인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사람이 있다. 백남준(1932~2006). 그는 비디오 예술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창시자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고유한 기호가 브랜드라면, 백남준은 분명 브랜드에 다름 아니다. 아니 명품브랜드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작가'라는 수사는 미흡하다. 누군가는 '융복합의 원류'라고 평하고, 누군가는 예술의 한계를 확대한 천재라고도 말한다. 그 뿐인가. 미래를 사유한 철학자이자, 기계를 유희적 대상으로 상징했던 미래학자이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에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다. 기흥구 백남준로에 자리한 아트센터는 특이한 외양이 이채롭다. 유연한 곡선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를 형상화했다. 한편으로 영문 이름 'Paik'의 첫 이니셜 P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익숙한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질 분위기다. 혹여 피아노를 부수며 퍼포먼스를 펼치던 젊은 시절의 백남준이 있을 것도 같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1984년으로 거슬러 가보자. 1월 1일 정도. 갑자기 TV 화면에 춤추는 여인이 등장한다. 뒤이어 어지러운 특수 효과가 오버랩된다. 얼마 지나지않을까. 화려한 여인이 등장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말한다. 요염한 입술에서 자막처럼 펼쳐지는 글씨체는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끌었다.

백남준의 위성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한 장면이다. 이 위성쇼는 방송사 WNET(미국)과 FR3(프랑스)가 진행을 맡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파리에서 펼치는 공연을 생중계했다. 그것도 쌍방향으로.

당시 공연에는 내노라하는 최고 예술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존 케이지, 이브 몽탕, 피터 가브리엘



## '피아노 형상화' 백남준 아트센터 업적 추앙보다 후배들 창작의 공간 4000여 도서·오디오 850건 비치 9주기 기념 'TV는 TV다' 전시중



아트샵

등... 이들은 브레이크 댄스, 패션쇼, 우주 요들송과 같은 즉흥 공연을 펼쳤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당시 인기를 끌던 조지 오웰(1903~1950)의 미래 소설 '1984'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알려진 대로 조지 오웰의 '1984'(1948년 작)는 '빅 브라더'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통제감시를 다룬 소설이다. 정보기술 사회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거라는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백남준은 오웰이 너무 부정적인 면만 주시했다고 보았다. "오웰의 예견이 절반만 맞았다"는 일침을, 백남준은 뼈뚫한 오마주로 표현했다.(물론 시대를 내다봤던 오웰의 선견지명은 온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의 진보가 부정적인 폐해를 낳는다고 보지 않았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의 통찰은 빛나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모바일로 대변되는 현대의 문명은 정보와 연대식을 심어주었다. 한편으로는 삶의 영역과 결부돼, 유희를 제공하는 기기로도 확장되고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그의 생애와 예술적 궤적이 응집된 공간이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 가운데 용인에 '백남준 기념관'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첨단과 자연을 아우르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뽐낼 수 있다. 또 하나, 2001년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희원했다고 한다. 자신의 업적을 추앙하는 공간이 아닌, 예술정신을 계승하는 신진작가들의 공간을 상징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상력을 극단으로 몰고 가, 새 영역을 일궈내는 예술적 의지를 후배들이 이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백남준은 1932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바람과는 달리 예술의 길을 선택한다. 도쿄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위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화운동(플럭서스)에 심취한다.

이른바 플럭서스(fluxus) 운동은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전위 예술을 말한다. 피아노를 파괴하는 행위, 관객의 네티어를 자르는 행위 등 파격적 예술을 일컫는다. 백남준의 지론인 "예술은 사기다"라는 불후의 명언과 연관된다. 무거운 권위를 무너뜨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은 이 지점에서 발현된다. 일상적 매체인 TV를 오브제로 채택한 아이디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자기술과 융합한 다채로운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일반 대중에게 또렷이 각인시킨다.

"백남준은 비디오 영상뿐 아니라 조각, 설치작품을 합성해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자기적인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다. 그는 예술을 통해 횡단과 확장, 경계를 넘는 미학적 실천을 도모했던 세기의 예술가이다."

홍보팀장 최희승 씨는 백남준은 규정지을 수 없는 아티스트라고 말한다. 아트센터를 둘러보면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찾은 정도로 이곳은 용인의 아트 코어로 자리잡았다.

이곳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 등 248점을 소장하고 있다. 아카이브 자료 2285점을 비롯 4000여권의 전문도서와 850건의 오디오 비주얼 자료도 비치돼 있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관을 확장하고 담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도 상시 개최된다.

올해는 9주기(1월 29일)를 계기로 추모전 'TV는 TV다'(6월 21일까지)와 후배 작가들의 전시회 '2015 랜덤 액세스'(5월 31일까지)가 열리고 있다. '임의 접속'을 의미하는 랜덤 액세스는 디지털 사회의 정보 접속 방식인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같은 백남준의 예술실현을 포괄한다.

/용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p><b>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b></p> <p><b>1일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08:00 목포항집결</li> <li>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li> <li>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 트래킹</li> <li>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li> <li>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li> </ul> <p><b>2일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식후-민공예전시장-조랑말체험</li> <li>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li> <li>에코랜드-기차타고곶자왓(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li> </ul> <p><b>3일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16:00 제주항도착</li> <li>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li> </ul>	<p>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p> <p>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li> <li>HOTEL : 일반호텔(4~6인실)</li> <li>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별)</li> <li>HOTER : 일반호텔(4~6인실)</li> <li>용골리안 마상소(현지직별)</li> </ul> <p>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불포항사항 : 음식(현지직별), 기사, 가이드팁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박요금 1인 ₩20,000원</p> <p>※상기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주중매기집니다.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문의</p>
--	---

###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항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항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병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